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1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김문수 · 이개호
안도걸 · 소병훈 · 주철현
이성윤 · 박홍배 · 정동영
윤준병 · 김용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·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. 기준 강화로 판·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.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,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,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.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.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,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.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.

만약 권력을 오·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. 큰 힘에 걸맞게,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.

이에,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·검사는 선고일부터

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 아울러 판·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(안 제5조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판·검사로서 탄핵 결정 선고가 있는 날
부터 판·검사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.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판 ·</u> <u>검사로서 탄핵 결정 선고가</u> <u>있는 날부터 판 · 검사 재직기</u> <u>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아니</u> <u>한 자</u>